

# 전북도, 중앙부처 청년들과 정책 소통

청년보좌역·2030자문단·전북 청년 활동가 등과 간담회 열고 청년정책·생활인구 유입 등 현안 논의

김관영 도지사가 중앙정부 부처에 임명돼 일하고 있는 청년보좌역 등을 만나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들을 주고 받았다.

전북도는 지난 23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정영준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청년보좌역, 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 전북 청년 활동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청년의 목소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각 부처 청년보좌역과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것으로, 인천, 강원 등에 이어 여섯 번째 간담회를 전북에서 개최한 것이다.



지난 23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정부 청년보좌역·전라북도 간담회에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정영준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청년보좌역, 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 전북 청년 활동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정책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청년보좌역은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수렴해 장관 직무를 보좌하는 역할로, 현재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박진감 행안부 청년보좌역이 김관영 도지사에게 사정인터뷰를 진행한 뒤 전라북도 청년정책 소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들을 토의하는 순으로 이뤄졌다.

사정인터뷰에서는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지역 사회 변화 모

습, 전라북도 대표 청년정책, 생활인구 유입 정책, 저출산 대응책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갔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농생명·신재생 에너지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기업하기 좋은도시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청년들이 전북에서 꿈을 펼치고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전북형 활력수당, 전북형 청년수당, 전북청년 함께 두배 적금 등 전북청년 합성 패키지 사업이 청년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있어 내년에는 확대 시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중앙정부 청년보좌역들이 지역순회 간담회를 통해 청년이 각자 고향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북도 역시 청년의 목소

리에 귀 기울여 청년들이 그리는 전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 일자리·주거·참여 정책 등 중앙부처의 청년정책 주요내용과 전북도의 청년정책 현황을 상호 공유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으며, 전북 청년 활동가들은 신혼부부 대출·청약·과세 완화, 청년 연령 불일 등 중앙정부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재훈 기자

## 장마 대비 인명·재산피해 예방 '총력'

임상규 도 행정부지사, 전주초지구 우수저류시설 방문 풍수해 대비상황 점검·빈틈없는 대응태세 확립 당부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임상규 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3일 전주 완산구 태평동에 위치한 전주 초지구 우수저류시설을 방문했다.

임 부지사는 저류시설의 기능 및 운영 매뉴얼을 점검하고 유입구 퇴적물 청소상태를 확인하는 등 풍수해 대비상황을 살피고 빈틈없는 대응태세 확립을 당부했다.



전주초지구 우수저류시설은 도심 내 불투수 면적의 증가로 인해 빗물이 일시에 급격히 모여 발생하는 도시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설치·운영 중이다. 680㎡ 규모로 저류시설과 73W의 펌프 4대를 갖춰 분당 200톤의 빗물배제가 가능하다.

료했고 순창군 순화지구 등 3개 지구는 공사 중으로 2025년까지 전체 완공 예정이다.

이어서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폭염 대응상황 점검을 위해 인근 SK뷰 아파트 단지내 무더위 쉼터도 방문해 냉방기 가동상태 등을 점검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했다.

전주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로 그동안 상습침수지역이었던 완산구 태평동 중앙동 일대의 침수피해와 주민불편이 대폭 개선됐다.

한편 우수저류시설내 재난 예·경보 전광판도 설치 중으로 7월 중 설치 완료되면 실시간으로 도민들에게 재난상황과 도민행동요령 등을 홍보할 수 있다.

또, 지하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상부공간은 공용주차장을 설치해 재산손실과 교통난 해소를 통한 주거여건 개선 효과도 있다.

도내에는 전주시 4개 지구를 포함 총 22개 지구의 우수저류시설이 계획돼 있다. 이 중 19개소는 설치 완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곧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극한강우와 태풍내습으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도록 수방장비 점검, 취약지역 예찰, 재해약자에 대한 방문관리 등 꼼꼼한 사전 대비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폭염에 대비한 대응태세 확립 및 선제적 대응에도 총력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도는 일부 무더위쉼터 주소에 오류가 있는 지역에 시군과 함께 무더위쉼터 정보를 현행화했다. 냉방기 가동상태 점검 및 정비도 월중으로 마무리해 폭염 발생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글로벌 디지털 창업 생태계 구축 '맞손'

전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업무 협약 디지털 신산업 육성·해외 스타트업 유치 협력

전북도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이 지역 디지털 신산업 육성 및 해외 스타트업 유치 등 글로벌 디지털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힘을 합친다.

전북도는 지난 23일 전북도청에서 국내 대표 정보통신기술(CT) 진흥 전문기관인 NIPA와 '지역 디지털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 허성욱 NIPA 원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을 통해 전북도와 NIPA는 지역 디지털 신산업 기폭 및 신산업 육성 지원 해외 스타트업 유치 및 지역 정보통신기술(CT) 기업 해외 진출 지원 등에 협력한다.

전북도는 NIPA 공모사업인 SW융합 클러스터 20에 빅데이터기반 스마트 플랫폼(SW)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과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에 선점해 추진중에 있다.

먼저, 빅데이터기반 스마트플랫폼 소프트웨어(SW)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은 2024년까지 140억원을 투입해 비즈니스 기반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지난 23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업무협약 체결식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허성욱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원장, 정수진 지역디지털 혁신추진단장, 기업유치지원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통신 분야 협업체업·글로벌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을 구축해 소프트웨어(SW)융합 서비스 모델개발, 사업화 지원은 물론 네트워크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등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은 올해 32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등 최첨단기술에 대한 체험

장비, 상시 체험·교육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교육 거점센터를 구축해 지역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외 스타트업 유치에도 협력해 나가고 있다.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해외 스타트업을 국내에서

창업하도록 액셀러레이팅하는 국내 대표 인바운드 프로그램인 NIPA의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사업과의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사업으로 사업성을 검증받은 해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전북도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관심있는 기업들과 투자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허성욱 NIPA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 지역의 특장점을 반영한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데 힘을 합쳐"며, "지역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해외 스타트업의 전라북도 유치 및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역의 열악한 디지털 산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같은 전문기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디지털 신산업 분야와 글로벌 창업분야에 대한 업무협력을 통해 전북이 새로운 길에 대한 도전과 혁신을 발판삼아 활력이 넘치는 지역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순환경제·농식품 민간투자·딥사이언스 창업 적극 대응 나서야"

김관영 도지사, 기재부 비상경제장관회의 정부발표 과제 관련 총력 당부

김관영 도지사가 23일 간부회의에서 순환경제, 농식품, 딥사이언스 등 정부발표 과제에 적극 대응하자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순환경제 활성화(신일부) △농식품분야 민간투자 투자생태계 조성(농식품부)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과기부) 방안의 대응을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부처별 발표된 정책에서 기업 지원과 정부 후속사업을 면밀히 파악해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순환경제 9대 산업 9대 프로젝트의 배분, 재생연료 분야는 우리도 기업과 산업의 관련성이 높으므로 적극 대응해 나가고, 농식품분야 민간투자에서도 스마트팜, 동물용 의약품, 농식품 가공산업, 푸드 클러스터 등에서 민간투자 확대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대응하자"고 말했다.

그는 "딥사이언스 등 전문과학기술 분야는 전문가를 찾아가 지문을 구하고, 전북에 초청해 도정 비영인 인식을

높여가는 등 신기술과 새로운 개척분야 발굴에 끊임없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최종 공모 선정 시까지 우리도의 산업 기반 마련과 인력 수급 해소 기업지원 체계 구축 등 특화단지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해 모멘텀을 지속하고,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소통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어 20일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결과 전북대가 선정된 데 대해, "전북대가

본지정 10개 대학에 선정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협력하고, 다른 대학에 대해서는 같이 모여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제도전을 위해 개선대책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지역축척 바가지 요금 관련 먹거리 폭리 방지대책에 철저를 기하라고 하면서, "시군에 전파한 축제운영 가이드라인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무주 산골영화제가 착한 가격으로 주목 받은 만큼 타 시군에도 모범사례를 전파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김재훈 기자

## 도내 이북도민·북한이탈주민 가족결연 행사

전북도에 거주하는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새로운 가족의 연을 맺으며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교류의 일환으로 지난 24일 전주시 완산구에 소재한 파티알에서 이북5도 위원회(위원장 이훈)가 주최하고 이북5도전북사무소(소장 조성용)가 주관한

이북도민·북한이탈주민 가족결연 행사를 통해 10쌍의 새로운 가족결연자가 탄생했다.

가족결연사업은 남한사회에서 홀로 서기와 사회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과의 1대 1 가족결연을 통해, 인적네트워크 형

성과 정착을 돕기 위해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함경북도명예도민으로 북한이탈주민과 새롭게 가족의 연을 맺은 김이재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서로의 지립과 정착을 돕는 든든한 정신적 조력자이자 후원자로 그 역할을 다 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가족결연 행사에 이어 함경북

도명예도민증 수상자 8명에 대한 수여식과 이북5도전북연합회 명예회장 위촉 수여식도 진행됐다.

이북5도전북연합회 명예회장에 위촉된 김관영 도지사의 배우자인 목영숙 여사는 "전북지역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전체의 화합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위촉 소감을 밝혔다. /김재훈 기자

## 전북도, 보름달물해파리 피해방지 대응 강화

지난 20일,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산물)은 전북 해역을 예찰 한 결과 기존 보름달물해파리 주의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단계로 발령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의 협조를 해파리 구제 작업에 필요한 국비 1억원을 긴급 추가 확보했고, 이를 시·군에 배정해 대응할 계획이다. 또 해파리 대량 출

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도 예비비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은 "해파리로 인한 어업피해 및 해수욕객의 쓰임 사고를 예방하고 해파리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